

‘함께 찾고, 함께 돕고,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매트’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 개최

- 17개 시도 인적안전망 대표자 초청, 사각지대 해소 의지 다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적안전망 참여자 50명을 초청해 인적안전망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협력을 다지는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를 5월 13일(수)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지역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적안전망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매트’ 마련에 대한 정부와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공동실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공유를 시작으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 발표, 전국 각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적안전망 활동가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은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먼저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및 직권신청 실효성 강화, ▲ 위기가구 소득·돌봄·심리 지원, ▲ 현장 복지공무원 적극 지원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로는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기발굴·지원 활동을 펼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기도 이천시 사례가 소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대상자가 전용 번호로 1일 1회 전화하는 것으로
참여율을 높인 역발신 방식의 ‘올레안부전화사업’을 소개하였으며,
경기도 이천시는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의료비·주거비
등을 민간 자원을 활용해 돕는 민관협력 ‘동행서포터즈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행사 참석자들은 ‘함께 찾고, 함께 돕고,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
매트’라는 표어를 선포하고, 인적안전망이 중심이 되어 우리 주위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때 지역
기반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가 완성됨을 강조하였다.

참석한 인적안전망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지역복지 현장에서 이웃들의
튼튼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동행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고, 정부는 인적
안전망이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복지안전매트가 되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임을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몇 건의 위기가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가구를 촘촘히 지원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 개요
2.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044-202-3136)



□ **추진 배경**

- (배경) 취약계층의 촘촘한 보호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안부확인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역할 강화 필요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 (목적) ▲정부 정책 전달, ▲인적 안전망 격려 및 사기 진작,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활동 역량 강화, ▲전국 인적안전망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 강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 5. 13. 15:00~16:00, 롯데호텔(서울) 벨뷰스위트
- (참석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장, (인적안전망) 17개 시도 인적안전망 대표자 50명*
 - * 유공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활밀접업종 종사자, 인적안전망 담당자(공무원 등) 등
- (슬로건) “함께 찾고, 함께 돕고,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매트”

□ **세부 일정(안)**

시간 (60')		주요 내용	비고
15:00~15:05	5'	■ 인사말	
15:05~15:20	15'	■ 정부 정책 공유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15:20~15:40	20'	■ 시군구 우수사례 발표(2개소) -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25년 우수사례
15:40~16:00	20'	■ 감사장 수여 및 기념 촬영 - 슬로건을 활용한 퍼포먼스 진행	

우수사례	주요내용	비고
<p>따르릉, 전화주세요! '올레안부전화' 사업 및 주민이 함께 채워가는 대천고팡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 매일 방문하기 어려운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필요, 정부 지원을 넘어선 지역사회의 자발적 지원 필요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부 확인하는 역발신 시스템 운영 - 1일 1회(1,000원) 마일리지를 적립, 참여율을 높이고 생활 안정 지원 -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 및 안부 확인 - '나눔 텃밭' 운영 및 나눔 ▶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 위기가웃을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 연계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p>제주도 서귀포시</p>
<p>제도가 놓친 빈틈을 메우고, 더 많은 주민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안전망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그늘" 속 주민 증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메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및 지역의 자원 연계 필요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 지정 기탁 성금으로 "동행서포터즈" 사업 시작 - 복잡한 심사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확인하거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인정하여 신속 지원(주거, 생계, 의료비, 기타지원 등) - 기존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위기 해결 - MOU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절차 간소화, 사람 중심 복지, 민관 협력 강화 	<p>경기도 이천시</p>